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2017년 11월 2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21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1. 21.(화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김재준 과장(044-203-4080)	담 당 자	류종민 사무관(044-203-4089)

산업부, 중국기업-중국 전문가 간담회 추진

- 중국발 투자 회복세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(장관 백운규)는 11.22. (화) 대통령 **중국 방문 등으로 정상화** 하고 있는 한중 관계를 기회로 **"중국발 투자 회복의 국면전환 마련"**을 위해, **"중국계 투자기업**과 **중국 전문가"와 간담회**를 개최했다.

○ 간담회에 **▲ 중국발 한국투자 특징, ▲ 현재 고려 중인 투자협력 사업(프로젝트)의 향후 투자계획, ▲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**를 진행했다.

【 행사개요 】

※ (**일시/장소**) **'17. 11. 21.(화) 12:00~15:30 / 팔레스 호텔 (서울)**
* (세션 1) 12:00~13:30, (세션 2) 14:00~15:30

★ (**세션1**) **유력투자 프로젝트를 보유**하고 있고, 신**산업 투자협력 가능성**이 높은 **기 투자기업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(CCPIT) 관계자**

★ (**세션2**) **중국산업 전문가 그룹**
* 법무회계법인, 국책연구기관, 민간연구소, 대학 등

□ 중국발 외국인투자는 '14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, '16년 사상 최고치인 20.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, 올해는 **급격히 감소 중** (3분기 신고기준 △63.4%)

○ 현지법인 신설투자(그린필드)는 감소폭이 적으나, 인수합병(M&A)형 투자의 감소폭이 크고, 구성도 제조업에서 **서비스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.***

* (그린필드) 서비스업 비중 70% / (M&A형) '12년까지 제조업 비중 95% → 최근 5년 서비스업 비중 85%

○ 업종별로는 **코리아 프리미엄**을 활용,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을 통해 **중국 내수시장 재진출**을 위한 **화장품, 식품 등 고급소비재 투자**가 활발하다.

□ 오늘 참석한 전문가에 따르면, **중국발 외투 감소원인**은 사드 갈등보다는 작년말부터 시행하고, 올해 8월에 중국 국무원이 명시적으로 발표한 **"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지침"**이 **주요 원인**이라고 지적했다.

○ 이 지침에 따르면, **외화유출 방지**와 시진핑 주석의 **"일대일로"** 정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투자대상을 **"장려, 제한, 금지"**로 구분해 관리하는데, 지금까지 **중국발 대한(對韓) 투자가 대부분 제한 업종*에 해당**한다.

* 최근 5년 간 중국발 가장 많은 대한(對韓) 투자가 이루어진 부동산, 금융, 문화·오락 - 부동산 30.4%, 금융 22.1%, 문화·오락 4.4%, ('12~'17.10, 전체대비 비중)

□ 이에 따라, 전문가들에 따르면, 정부 투자유치설명회(IR) 수립 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해 **프로젝트 타켓팅**을 제안했으며,

○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**조기에 투자유치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설명회(IR)에서 접수한 애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**를 요구했다.

○ 또한, **중국정부**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**관련 투자를 장려**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,

- **중국발 대한 투자**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**"일대일로" 정책을 면밀히 파악**하고, 양국 간 **윈-윈할 수 있는 투자협력모델**을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.

□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**마무리 말씀**을 통해,

○ **중국의 대한(對韓) 투자의 회복세**를 **만회**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**아이디어와 투자협력 모델을 면밀히 검토·추진**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.

○ 또한, 새로운 **가치사슬(밸류체인) 구축**이 필요하다는 **업계의 공감대**를 바탕으로 **더욱 구체적인 투자협력방안과 사업 발굴**을 위해 업계와의 **접촉면을 강화**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류종민 사무관(☎ 044-203-40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